

A futuristic scene with a robotic arm on the right, a glowing brain on a screen on the left, and a glowing circuit board on the bottom. The background is dark with blue and purple lights.

ISSUE

산업혁신을 이끄는 Vertical SaaS: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Vertical SaaS Driving Industrial Innovation:
Market Growth and Implications

- 이동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선임연구원 | dhlee1016@spri.kr
- 나청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선임연구원 | chunghonice@spri.kr

EXECUTIVE SUMMARY

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산업별 업무 구조와 규제·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Vertical SaaS가 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범용 소프트웨어 중심의 업무 전산화 단계를 넘어, 산업 고유의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는 특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Vertical SaaS는 점차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Vertical SaaS 시장은 2024년 약 901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0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14%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는 온프레미스(On-premise) 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 기반 업무 전환이 일시적 흐름을 넘어 구조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초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했으나, 2026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부문의 도입 확산이 본격화되며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Vertical SaaS의 구조적 성장은 정치·법,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의료·금융·제조 등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사후 대응이 아닌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내재화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자동화를 통해 명확한 비용 절감 효과와 투자 대비 성과를 제공하는 구독형 SaaS 모델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제조 현장과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대면·원격 근무 환경의 확산이 산업특화 업무 도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의 결합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단순 지원 도구를 넘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진화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정착은 이러한 변화의 확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향후 Vertical SaaS 시장이 헬스케어, 금융,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 기반 임상 문서 자동화와 의료 데이터 상호운용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향후 5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금융 분야는 전체 Vertical SaaS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레거시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규제·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대응 수요가 맞물리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역시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과 공정·설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통제 수요가 확대되며, 특히 중소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경량화된 산업특화 SaaS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Vertical SaaS는 개별 기업의 효율화 도구를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범용 SaaS 활용에 머무르기보다, 산업 도메인 지식과 현장 데이터를 결합한 AI-Native 서비스로의 전환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산업별 공통 데이터 기반과 인프라를 조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Vertical SaaS 모델의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 선도 대기업과 SaaS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실증 중심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생태계 기반 조성 전략이 요구된다.

As software adoption becomes increasingly widespread across industries, Vertical Saa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industrial sectors. Rather than relying on horizontal, general-purpose enterprise software, organisations are progressively adopting specialised platforms that align with industry-specific workflows, regulatory requirements, and data structures. In this context, Vertical SaaS is increasingly recognised not only as a tool for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but also as an enabling asset that supports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global Vertical SaaS market is projected to expand from approximately USD 90.1 billion in 2024 to USD 205.6 billion by 2030, corresponding to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over 14%. This growth markedly exceeds that of on-premises industrial software, suggesting that cloud-based operating models have entered a phase of structural diffusion across industries. While early adoption was largely concentrated among large enterprises, market expansion from 2026 onward is expected to be increasingly driven by uptake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expansion reflects the combined effects of regulatory,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sectors characterised by high regulatory intensity—such as healthcare, financial services, and manufacturing—organisations face growing incentives to integrate compliance and risk-management functions directly into core software systems, rather than relying on ex post control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persistent labour shortages and rising labour costs are strengthening demand for subscription-based SaaS models that support automa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s, while offering clearer cost-benefit outcomes. Social factors, including chronic workforce constraints and the wider adoption of remote and hybrid working arrangements, are further increasing the relevance of industry-specific digital tools. In parallel, advances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rge language models are enabling Vertical SaaS solutions to evolve beyond decision-support functions toward more autonomous task execution, while the continued maturation of cloud-native environments is reducing barriers to adoption.

Looking ahead, market growth is expected to be concentrated in healthcare, financial services, and manufacturing. In healthcare, demand is being driven by the adoption of AI-enabled clinical documentation and workflow automation, alongside increasing requirements for interoperability across health data systems, resulting in comparatively strong growth prospects over the next five years. Financial services constitute a substantial and relatively stable segment of the Vertical SaaS market, supported by the gradual modernisation of legacy systems and sustained demand for regulatory and compliance-related solutions. In manufacturing, the transition from hardware-oriented operations toward software-based monitoring, control, and optimisation is accelerating, particularly in response to supply-chain volatility and increasing resilience requirements. Adoption is also expanding among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through more modular and field-oriented SaaS solutions.

Overall, Vertical SaaS is evolving beyond a firm-level efficiency instrument to become an enabling layer of digital infrastructure with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at the industry level. For firms, this implies a gradual shift from generic SaaS tools toward AI-enabled solutions that combine domain-specific knowledge with operational data. From a policy and ecosystem perspective, priorities includ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hared, industry-level data infrastructures that individual firms may find difficult to establish independently; reducing uncertainty related to experimentation and market entry through regulatory sandboxes and adaptive regulatory approaches; and encouraging collaboration between incumbent firms and specialised SaaS providers to facilitate diffusion, interoperability, and the scaling of effective solutions across s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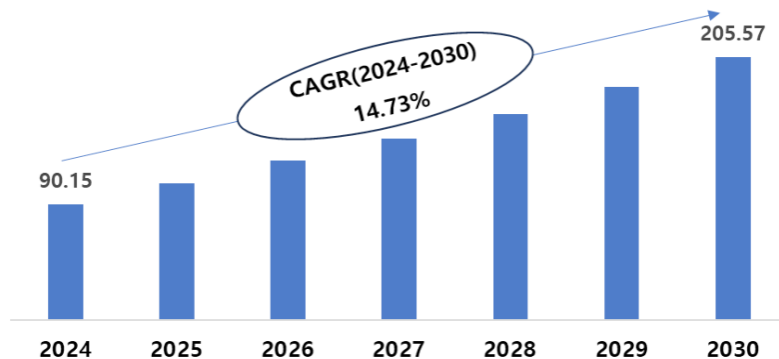
I Vertical SaaS 시장의 성장

○ 산업 전반에서 SW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산업 고유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형 산업특화 소프트웨어(Veertical SaaS)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 [참고1]

- (성장 전망) '30년까지 약 2,0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202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73%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Mordor Intelligence, 2025)
- 동 성장 추이는 Vertical SaaS 수요가 일시적 도입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 업무 전환과 데이터·AI 활용 확산에 따른 구조적 변화 단계에 진입을 시사

* 출처: Mordor Intelligence(2025), Vertical SW 시장 규모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가공

[그림 1] Vertical SaaS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2024~2030, 단위: 10억 달러)



참고1 Vertical SaaS의 개념

◆ Vertical SaaS는 특정 산업의 고유한 문제 해결과 특수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형 산업특화 소프트웨어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 (2산업 고유 문제 해결) 범용적인 기능이 아닌 제조, 의료, 금융 등 특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요구사항(Pain Points)을 해결하는 데 집중
- (도메인 전문성) 공급업체는 해당 산업의 프로세스, 규제,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
- (세분화 기능성) 해당 산업의 업무 단위에서 매우 세분화하여 개발
 - 제조 공정 최적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 금융의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등 산업별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내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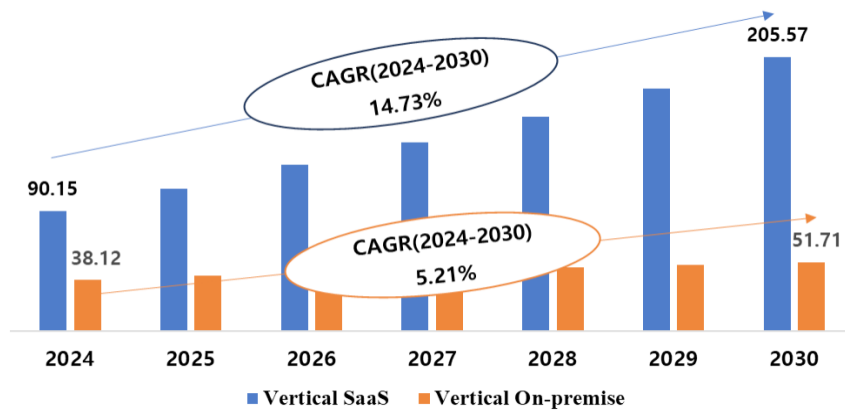
출처: Eric Mersch(2024), SaaS "Industry-Centric" Business Models: Horizontal vs Vertical

○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시장은 구독 모델과 플랫폼 생태계의 이점을 바탕으로 온프레미스 중심에서 클라우드(SaaS)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 (비즈니스 모델 전환) 레거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구 라이선스 모델은 구독형(SaaS) 모델로 대체되며, 지속적 업데이트·보안·규제 대응이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가 표준으로 정착
- (클라우드 성장) Vertical SaaS는 '24~'30년 연평균 약 14.73%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어 온프레미스 (5.21%) 대비 약 3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산업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숙과 확산이 시장 성장을 견인 (Mordor Intelligence, 2025)

* 출처: Mordor Intelligence(2025), Vertical SW 시장 규모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가공

[그림 2] 온프레미스¹ 대비 Vertical SaaS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비교(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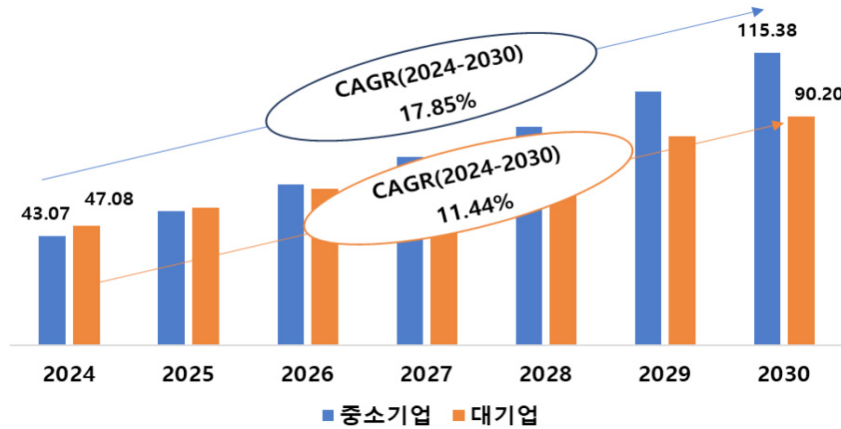


- (수요 저변 확대) 구독 모델은 초기 도입 비용과 전문 IT 운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도입을 넘어 중소기업 및 디지털 전환(DX)이 지체된 산업으로 Vertical SaaS 확산을 촉진
 - 중소기업 부문은 '24~'30년 CAGR 17.85%로 대기업(11.44%) 대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Vertical SaaS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핵심 산업 인프라로 진화하여 수요 확장(Mordor Intelligence, 2025)
 - '25년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Vertical SaaS 수요가 유지되나,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숙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26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도입 확산이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출처: Mordor Intelligence(2025), Vertical SW 시장 규모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가공

¹ 온프레미스(On-premise)는 소프트웨어나 서버 같은 IT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물리적 공간(전산실, 데이터 센터 등)에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

[그림 3] 기업 규모별 Vertical SaaS 시장 규모 및 성장을 비교(단위: 10억 달러)



○ Vertical SaaS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 차원을 넘어, 산업 고유의 워크플로우 복잡성, 규제 준수 요구, AI 기반 고도화 수요가 결합되며 구조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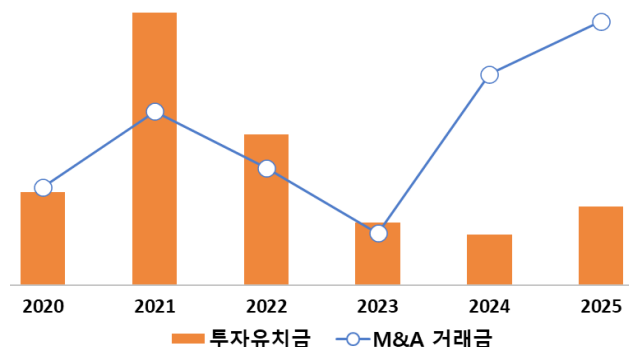
- (산업특화 워크플로우) 금융·제조·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에서는 범용 SW로는 대응이 어려운 산업별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수요가 지속 확대(BCG, 2023)
 - 제조 공정·진료, 신약 개발·금융투자 등 핵심 업무 흐름을 소프트웨어에 내재화한 Vertical SaaS가 운영 표준으로 정착
- (규제 내재화 수요) CSDDD(공급망정보), HIPAA(의료정보), MiFID II(금융정보) 등 산업별 규제 강화로, 규제 준수 기능을 사후 대응이 아닌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내재화하려는 수요 증가(Mordor Intelligence, 2025)
 - Vertical SaaS에 지속적·비가격 민감적 수요(Captive Demand)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 (AI·데이터 기반 고도화) 생성형 AI, 예지 보전, 지능형 의사결정 등 AI 기반 기능이 산업별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산업 지식을 함께 보유한 Vertical SaaS의 경쟁력 강화(Medium, 2025.8.25.)

○ Vertical SaaS 시장에서 VC 투자유치금은 2021년 이후 감소·변동 국면에 진입한 반면, M&A 거래금은 중장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 [그림 4 참조]

- VC 투자 조정과 M&A 확대가 병행되며, 확장 국면에서 재편·통합 국면으로 전환

* 출처: Tracxn, Vertical SaaS DB 기반 연구진이 산출

[그림 4]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M&A 거래 현황(2020~2025)



- (투자 가치) 투자자는 높은 전환 비용, 장기 구독 계약 구조를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성장성과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Medium, 2025.7.11.)
 - (전환 비용) 핵심 워크플로우 내재로 전환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높아, 고객 이탈이 낮고(lock-in)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안정적 매출 구조 형성
 - (장기 구독 구조) 산업 핵심 업무에 밀접하게 결합돼 장기 구독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매출 가시성과 현금흐름 안정성이 높아 투자 가치 높음

○ 앞서 제시한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 Vertical SaaS 시장은 산업 구조 전환과 맞물린 중장기 성장 시장으로, 향후 국내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정책 발굴의 영역으로 부상

○ (연구목적) Vertical SaaS 시장의 성장 구조와 산업별 확산 양상, 선도 기업의 경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Vertical SaaS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정치·법·경제·사회·기술 환경 변화(PEST)에 따른 Vertical SaaS 시장의 구조적 성장 동인과 수요 확산 양상을 분석
- Vertical SaaS 수요가 높은 헬스케어·금융·제조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적용 사례와 성장 요인, 가치사슬 등을 비교·분석하여 산업별 특성을 도출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Vertical SaaS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II Vertical SaaS 성장 동인: 정책·법·경제·사회·기술 환경(PEST 분석)

1. 정책·법적 영향 요인(Policy&Legal)

○ 규제 및 정부 정책의 강화는 Vertical SaaS 도입을 촉진하는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BCV, 2023)

- (산업별 규제 준수) 의료, 금융, 건설 등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 Vertical SaaS는 규제 준수 기능 내재화를 통해 법적 리스크 대응

[표 1] Vertical SaaS의 산업별 규제 대응 기능

| 영역 | 주요 규제·제도 | Vertical SaaS 내재 기능 |
|--------|-------------------------------|--|
| 의료 | HIPAA, GDPR, 21 CFR Part 11 | • 진료기록, 임상 데이터, AI 진단 결과의 보안·추적·감사 기능 |
| 금융 | MiFID II, Basel III, AML, KYC | • 거래 데이터 실시간 기록, 규제 리포트 자동 생성, 내부통제 워크플로우 |
| 건설·인프라 |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규제, 공공조달 규정 | • 현장 안전관리, 공정·자재 추적, ESG·환경 데이터 디지털 기록 및 보고 기능 |
| 제조·공급망 | CSDDD, REACH, RoHS, ISO | • 원자재·부품 이력 추적, ESG 데이터 자동 수집·보고 기능 |
| 에너지·환경 | EU ETS, CBAM | • 에너지 사용·배출 데이터 실시간 수집, 규제 보고 자동화 |
| 농업·식품 | FSMA, HACCP | • 생산·유통 이력 추적, 품질·위생 기록 자동 관리 |

출처: 관련 규제·제도 문헌을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정책 및 법안) 각국의 디지털 기록·데이터 관리 의무화, 데이터 보안 강화 정책* 등은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특화 SW 수요 높임
 - 정부 차원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바우처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Vertical SaaS 도입의 마중물로 작용
 - * 전자 운행기록장치 의무화(물류·운송), 인플레이션 감축법(건설·에너지), EU의 데이터법(전산업) 등

2. 경제적 영향 요인(Economic)

○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Vertical SaaS는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이라는 명확한 ROI를 제공하며 지속적 수요 창출(Medium, 2025.7.11.)

- (구독 모델) 초기 비용이 높은 영구 라이선스 대신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구독 모델이 확산되면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도입
- (비용 효율화)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건설, 제조, 의료 등)에서는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수적
 - AI 기술이 결합된 Vertical SaaS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투자 대비 높은 효과를 제공
- (생산성 향상) 산업특화 SW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비용 상승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투입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 상승

3. 사회적 영향 요인(Social)

○ 인구 구조의 변화, 노동력 부족, 디지털 경험에 대한 사용자 인식변화 등이 Vertical SaaS 시장의 성장을 견인(Forbes, 2023.7)

- (노동력 부족) 의료, 제조, 물류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현장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촉진
- (비대면·원격문화)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교육·의료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급증
- (초개인화 사회) 소비자들은 개인화된 경험과 빠른 대응을 기대하며, Vertical SaaS는 산업별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도구로 인식

4. 기술적 영향 요인(Technological)

○ AI·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의 진보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 시장 수요 다변화(Harlem Capital, 2025; Medium, 2025.8.25.)

- (생성형 AI·LLM의 결합)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 처리 기술의 고도화로, 산업 워크플로우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
- (도메인 전문성) 산업특화 워크플로우 데이터에 기반한 Vertical SaaS는 범용 AI 대비 적합성과 전문성이 높은 AI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서비스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
- (클라우드 네이티브) 산업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의 고도화로 온프레미스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 되고, API 기반 연계를 통해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 확보로 도입 장벽을 완화

[표 2] Vertical SaaS 시장 성장 요인 PEST 분석 요약

| 영역 | 성장 요인 |
|---------------------------|--|
| Political·Legal (정치·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 준수 기능의 SW 내재화 요구 확대 • 디지털 기록·데이터 관리 의무화 및 데이터 보안 강화 정책 확산 •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
| Economics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독 모델 확산으로 초기 도입 비용 부담 완화 • 인력난·인건비 상승 대응을 위한 자동화 수요 확대 • AI 결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높은 ROI 제공 |
| Social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제조·물류 등 산업의 만성적 인력 부족 • 비대면·원격 근무·교육·의료의 일상화 • 산업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수요 확대 |
| Technological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LLM 결합으로 비정형 데이터 처리 고도화 • 산업 워크플로우의 자율 수행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 • 산업특화 클라우드·API 확산으로 시스템 연계 용이 |

III

Vertical SaaS 주요 산업 동향

○ 헬스케어(14.95%), 금융·보험(9.67%), 제조업(9.08%)이 향후 5년간 Vertical SaaS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3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

[표 3] Vertical SaaS 3대 핵심 산업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연도 | 제조업(Manufacturing)* | 금융·보험(BFSI) | 헬스케어(Healthcare) |
|-----------------|---------------------|---------------|------------------|
| 2024(기준) | 387.9(15.37%) | 264.8(15.18%) | 182.9(20.73%) |
| 2025(전망) | 440.0(13.43%) | 300.3(13.41%) | 217.4(18.87%) |
| 2026(전망) | 491.6(11.73%) | 336.0(11.88%) | 254.9(17.26%) |
| 2027(전망) | 535.8(8.99%) | 367.3(9.31%) | 292.1(14.61%) |
| 2028(전망) | 581.9(8.60%) | 401.0(9.17%) | 334.3(14.45%) |
| 2029(전망) | 629.7(8.21%) | 437.2(9.02%) | 382.0(14.28%) |
| 2030(전망) | 679.6(7.93%) | 476.4(8.97%) | 436.3(14.21%) |
| CAGR(2025-2030) | 9.08% | 9.67% | 14.95% |

출처: Mordor Intelligence(2025) 자료 기반 연구진 산출, 제조업 수치는 원자료에서 제조·자원산업이 통합된 값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업 비중이 85% 정도 차지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진 재산출

1. 헬스케어 Vertical SaaS

○ 향후 5년간 연평균 15% 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전체 시장 평균 성장률(11.68%)을 크게 상회하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핵심 분야

- (성장 동력) 헬스케어 Vertical SW 시장의 고성장은 성숙 단계의 EHR²가 지능형 자동화·R&D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된 데 기인함(조원영, 이동현, 2025)
 - (AI 기반 임상 문서 자동화 확산) 의료 인력 부족과 번아웃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임상 문서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 Epic은 MS와, Oracle Health는 Google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반 앰비언트 임상 비서 기능을 자사 EHR 플랫폼에 통합

² EHR(Electronic Health Record): 환자의 진료·검사·처방·영상·청구 등 의료 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의료 기록 시스템

- (임상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가속)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시험 관리(CTMS)³, 규제 제출, 신약 상용화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
 - * Veeva Systems는 임상·규제·품질 관리의 표준 플랫폼으로 안착했으며, 이는 파편화된 레거시 시스템의 통합형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를 시사
 -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표준 대응 수요 확대) 주요 국가의 규제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의무화
 - API 기반의 데이터 교환, 개방형 플랫폼, 외부 애플리케이션 연계 기능이 EHR 및 헬스케어 SW 도입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
- (가치사슬) 의료는 가치사슬 전반이 성숙·성장 단계이나, AI 활용 확대와 규제 대응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시장 고도화 진행
 - (환자 정보·청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확산과 개인정보 규제 대응을 통해 기본 인프라가 정착된 성숙 단계 진입. 병원 운영의 효율화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명확하여 솔루션 도입 활발
 - * (환자 정보 관리) 환자 등록 및 실시간 보험 자격 유효성 검증, 예약, 사전 문진표 작성, 제증명 발급, 진료기록 열람 기능 등
 - * (청구·정산) 청구 자동화 및 사전 심사, 수납 및 미수금 관리, 부정 청구(허위·부당 청구 위험) 탐지
 - (진료·처방) 진료 워크플로우는 핵심 영역으로 성숙 단계에 있으나, 원격의료 및 AI 기술과 결합하며 재도약(성숙→성장) 중으로 단순 기록을 넘어 임상 의사결정 지원(CDS)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확장
 - * 주요 기능: 처방전 관리, 원격의료 솔루션, AI 보조 진단 확산
 - (데이터 관리·사후 관리) 향후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의 핵심 성장 축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와 강화되는 규제 대응을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높은 락인(Lock-in) 효과 형성
 - * (데이터 관리) PACS(영상), 임상 데이터 통합 등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 * (사후 관리) 의료 품질 및 규제 준수를 위한 지속적·비가격 민감적 수요 대응 필요

³ 임상시험 관리는 시험대상자 관리, 연구기관 관리, 모니터링 및 리포팅, 규제 컴플라이언스 관리 등 임상시험의 기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

[표 4] 헬스케어 Vertical SaaS의 가치사슬별 시장 활성화 분석

| 단계 | Vertical SaaS 주요 기능 | 시장 활성화 ⁴ | 주요 내용 |
|-------------|---|---------------------|--|
| 환자 정보 수집 | 환자 등록·관리, 개인정보·의료정보 보호(HIPAA/GDPR) 환자 포털·셀프서비스 기초 건강 데이터 수집 | 성숙 | 전자의무기록(EHR) 확산으로 기본 인프라 정착, 개인정보·보안 규제 주도 수요 |
| 진료·처방 | 전자의료기록(EHR), 처방전 관리 임상 의사결정 지원, 원격의료 솔루션 | 성숙 > 성장 | 진료 워크플로우 핵심 영역, 원격의료·AI 보조 진단 확산 |
| 의료 데이터 관리 | 환자 정보 공유, 영상의료기록(PACS) 임상 데이터 통합 | 성장 | 데이터 상호운용성 수요 증가, AI 활용 기반 확대 |
| 청구·정산 | 진료비 청구, 보험 청구 자동화 의료 사기 적발 | 성숙 | 병원 운영 효율화 중심, 비용 절감 효과 명확 |
| 사후 관리 규제 대응 | 의료 품질 모니터링, 규제 준수 감사 로그 의료 데이터 보안/접근 통제 | 성장 | 규제 강화로 지속적·비가격 민감적 수요 형성, 락인 효과 확대 |

출처: Gartner(2024), Mordor Intelligence(2025)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정리

2. 금융 Vertical SaaS

○ Vertical SaaS의 매출 규모가 큰 산업(전체 시장의 약 21%)으로, 클라우드 전환과 규제 준수라는 강력한 동력을 바탕으로 Vertical SaaS의 안정적 수요 창출을 주도

- (성장 동력) 수십 년 된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적 플랫폼으로 교체하는 코어 시스템 현대화가 성장 주도(김항규, 송지환, 2025)
 - (코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대거 교체, 새로운 계약의 대부분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업계 선두인 Guidewire(보험)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구독 및 지원 매출이 전년 대비 3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
 -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GDPR(개인정보), Basel III(자본 요건), MiFID II(거래 보고) 등 금융 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자동화하고 준수하기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 수요 급증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채택)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호하는 반면, 소규모 기관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

⁴ 금융, 의료, 제조 산업이 시장 활성화 단계는 1단계(도입, 디지털화 진행), 2단계(성장, 워크플로우 통합 또는 규제 감시 기능 내재화), 3단계(성숙, AI 기반 고도화)로 분류하고, Mordor Intelligence(2025)와 Gartner(2024) 참고자료의 내용과 전문가 자문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

- (임베디드 금융 및 오픈뱅킹) 오픈뱅킹 API의 확산과 ISO 20022 결제 메시징 표준 도입으로 인해, 데이터 연결 및 실시간 결제 처리가 가능한 플랫폼 기능 요구
- (가치사슬) 고객 유입·거래(성숙), 심사·상품(성장·부분 활성화), 리스크·규제(성장) 단계로 구분되며, AI 신뢰성(설명 가능성) 확보 및 고도화된 규제 준수(Compliance)영역으로 갈수록 부가가치 확대
 - (고객 유입·거래) 핀테크 확산과 비대면 금융 보편화로 고객 확인(KYC) 및 거래 실행 영역(대출·상품 가입 등)은 필수 인프라화(성숙 단계) 진행
 - * (고객 정보 수집) KYC(고객 확인), AML(자금세탁방지) 자동화 등 규제 주도 수요에 의해 도입이 보편화됨
 - * (거래·집행) 대출 프로세스 및 금융 거래 자동화 등 운영 효율성 중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명확하여 도입 활발
 - (심사·평가 및 상품)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인 '리스크 판단'과 '가격 결정' 영역으로, AI 도입이 활발하나 표준화 난이도가 높음(성장~부분 활성화)
 - * (심사·평가) AI 기반 신용 평가(CSS), 보험 인수 심사(Underwriting)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며, AI의 결과 설명 가능성(XAI) 요구 증대
 - * (상품·가격) 예·대출 금리 및 보험료 책정 등 데이터 기반 전환 중이나, 기관별 전략 차이로 인해 SaaS 표준화는 제한적(고도화 잠재성 높음)
 - (사후 관리·규제) 금융 범죄 고도화 및 규제 강화에 따라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고 강력한 락인 효과가 형성되는 시장
 - * (리스크 관리) 실시간 금융 사기 적발 및 AML 모니터링 등 지능형 보안 수요 확대

[표 5] 금융 Vertical SaaS의 가치사슬별 시장 활성화 분석

| 단계 | Vertical SaaS 주요 기능 | 시장 활성화 | 주요 내용 |
|----------------|--|---------|--|
| 고객 유입 정보 수집 | KYC, AML 자동화 고객 재정 상태·거래 패턴분석 합성 신용 데이터 생성 | 성숙 | 규제 주도 수요로 도입 보편화, 금융기관 필수 인프라로 정착 |
| 심사·평가 | AI 기반 신용 평가 대출 승인·거부 자동화 보험 인수 심사, 행동 기반 위험 평가 | 성장 | 금융 Vertical SaaS의 핵심 차별 영역, AI 정확성·설명 가능성 요구 확대 |
| 상품·가격 결정 | 예·대출 이자율 결정 보험료 책정, 신규 금융상품 개발 | 부분 활성화 | 데이터 기반 전환 중이나 SaaS 표준화는 제한적, 고도화 여지 큼 |
| 거래·집행 | 금융 거래 자동화, 대출 프로세스 자동화 영상·이미지 기반 보험금 산정 | 성숙 > 성장 | 운영 효율성 중심 영역, 비용 절감 효과 명확 |
| 사후 관리 규제 대응 | 금융 거래 사기 적발 보험 청구·인수 사기 탐지 지속적 AML 모니터링 | 성장 | 규제 강화로 비가격 민감적 수요 형성, 락인 효과 가장 강함 |

출처: Gartner(2024), Mordor Intelligence(2025) 기반으로 연구진 재처리

3. 제조 Vertical SaaS

○ 규모 기반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AI·데이터 기반 고도화 수요 확산을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Vertical SaaS의 핵심 분야

- (성장동력)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 탈피와 AI·데이터 기반 공장 지능화,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수요가 결합되며 Vertical SaaS 도입이 가속화
 - (제조 패러다임 전환) HW 중심 제조에서 SW 기반 통제·최적화 수요가 확대되며, 공정 전반에서 Vertical SaaS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
 - (AI 기반 운영 효율성 제고) IoT·AI 기반 예지 보전·품질 관리로 설비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기반 공정 효율·품질 경쟁력 강화
 - (공급망 가시성·리스크 관리)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조달-생산-물류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특화 SaaS 도입 확대
 - (규제·안전관리 내재화) 환경·안전·보건(Environment·Health·Safety, EHS) 등 복잡한 규제를 SW에 내재화하여, 법적 리스크와 규제 대응 비용을 절감하려는 수요 확대

- (가치사슬) 제조는 설계·개발(성숙), 생산·운영(성장), 품질·설비는(보완 필요) 단계로 구분되며, 데이터 통합과 표준화에 대한 지원 필요
 - (설계·개발) 설계·개발 및 생산 준비 영역은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 컴퓨터 지원 설계/제조(CAD/CAM), 제품 데이터 관리(Product Data Management, PDM) 등은 글로벌 솔루션 중심으로 표준화
 - * (주요 기능) CAD/CAM, PDM 등 전통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영역
 - * (특징) Autodesk(US), Dassault(FR) 등 글로벌 벤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보편화되어 안정적인 생태계 운영 중
 - (생산·운영)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와 맞물려 디지털 트윈 및 현장 제어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되는 핵심 성장 단계
 - * (생산 준비) 생산 시뮬레이션, 제조 인텔리전스 등 공정 최적화를 위한 AI/디지털 트윈 적용 확산
 - * (현장 운영) 공장 일정 관리, 작업장 제어, 린(Lean) 제조 관리 등 기존 구축형 제조 실행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을 대체하는 현장 중심의 경량화된 SaaS 수요 확대

- (품질·설비)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를 위한 필수 영역이나, 데이터 파편화로 인해 솔루션 도입이 지체되는 영역의 지원 필요 단계
- * (품질·안전) 규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강화로 수요는 증가하나, 통합 솔루션보다 개별 기능 중심의 도입에 그침
- * (유지·고도화) 예지보전 등 AI 적용 초기 단계로, 설비 데이터의 표준화 미흡 및 이기종 장비 간 연계 부족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가장 시급한 정책적 지원 필요

[표 6] 제조 Vertical SaaS의 가치사슬별 시장 활성화 분석

| 단계 | Vertical SaaS 주요 기능 | 시장 활성화 | 주요 내용 |
|----------------|-------------------------------------|--------|---|
| 설계·개발 | 제품 엔지니어링 CAD/CAM, PDM 제품구성시스템 | 성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선도 솔루션 다수 존재, •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으로 도입 보편화 |
| 생산 준비·최적화 | 생산 시뮬레이션 제조 인텔리전스 |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트윈·AI 적용 확산, 공정 최적화 수요 증가 |
| 생산·운영 | 공장 일정관리 작업장 제어 린 제조관리 |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 SaaS 수요 확대, 중소 제조기업 도입 가속 |
| 품질·안전 | 품질관리 테스트 작업장 안전관리 | 부분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안전 강화로 수요 증가, 통합 솔루션은 제한적 |
| 유지·고도화 (설비) | 설비관리 | 지원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지보전·AI 적용 초기 단계, 데이터 표준·연계 부족 |

출처: Gartner(2024), Mordor Intelligence(2025) 기반으로 연구진 재정리

IV |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Vertical SaaS 시장에 주목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 수요 산업별 성장 동인, 가치사슬 분석 등을 통해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 대내외 환경 변화(Political·Economic·Social·Technological, PEST): Vertical SaaS 구조적 성장의 복합적 동인
 - (P, 규제 내재화) 산업별 규제 강화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단계에서 규제 준수를 자동화하는 Vertical SaaS 수요가 확대
 - 규제 해석·보고·감사 기능이 워크플로우에 내재화되며, 규제 대응 비용과 운영 리스크를 동시에 절감
 - (E, 비용·ROI)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구독형 기반의 산업특화 자동화 솔루션이 낮은 도입 비용과 비용 절감 효과로 확산
 - 범용 SW 대비 도입·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낮고, 특정 산업 업무에 최적화된 기능 제공을 통해 투자 회수 기간 단축
 - (S, 수용성·인식변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근무 확산으로, 범용 SW를 넘어 산업별 맞춤형 Vertical SaaS에 대한 필요성 및 선호도 강화
 - 산업별 업무 맥락을 반영한 UI·프로세스·데이터 모델이 사용자 수용성과 전환 비용 절감에 기여
 - (T, AI-Native Vertical SaaS로 진화) 생성형 AI 결합으로 Vertical SaaS가 AI 에이전트 기반 산업 운영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산업특화 클라우드 API 확산으로 레거시 연동 장벽 완화
 - 산업특화 클라우드 API 확산으로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 장벽이 완화되며, 데이터 축적을 통한 지속적 성능 개선과 락인 효과 강화

○ 3대 핵심 산업별 성장 동인

- (헬스케어) 성숙 단계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AI 기반 임상 문서 자동화 및 R&D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고성장을 주도
 - 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 부상
- (금융) 수십 년 된 코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복잡한 규제 준수 수요가 맞물려 안정적 성장을 지속함
 - 오픈뱅킹 확산에 따른 임베디드 금융 플랫폼화로 수익 다각화
- (제조) 하드웨어 중심에서 SW 기반의 통제 및 최적화로 패러다임 전환
 -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가시성 확보와 EHS 규제 대응에 대한 SW 내재화 수요가 Vertical SaaS 도입을 가속화

○ Vertical SaaS는 단순한 SW 도입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으므로, 기업과 정책 차원의 전략적 접근 필요

- (기업) ‘넓고 얇은’ 범용 서비스에서 ‘좁고 깊은’ 초격차 전문성으로 전환
 - (도메인 지식의 자산화) 특화 산업의 복잡한 규제와 관행(암묵지)을 완벽히 이해하여 SW 기능(형식지)으로 내재화함으로써 고객에게 즉각적인 효용 제공
 - (수익 모델 다각화) 단순 구독 모델을 넘어, 산업 내 발생하는 결제·대출·보험 등을 통합하는 ‘임베디드 금융’ 전략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고객 락인을 강화
- (기술) ‘AI-Native’ 전환을 통한 산업특화 지능형 서비스 구현
 - (Vertical AI 구축) 특화 산업 내 축적된 양질의 독점적 데이터를 학습시킨 ‘버티컬 AI’와 개발·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영역 창출
 - (레거시 연결성 확보) 노후화된 레거시 시스템(ERP, OT, EMR 등)과 충돌 없이 연동되는 오버레이(Overlay) 기술 및 API 경쟁력을 확보
- (정책) 인프라 지원, 규제 혁신,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인프라) 산업특화 데이터 활용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 (산업특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공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개별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 데이터를 생태계 차원에서 확보
 - * (도메인 지식의 데이터 자산화 지원) 특화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암묵지와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 금융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 간 거래·리스크·고객 행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금융 산업 공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 신용 평가·이상 거래 탐지·RegTech SaaS 고도화 지원

(제조) 공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소 제조기업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설비·공정·품질 데이터를 생태계 차원에서 공유·활용을 위한 공정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예지보전·품질관리·스마트팩토리 SaaS 확산 기반 마련

(의료) 의료 데이터 연계·표준화 인프라 구축

병원·연구기관·헬스케어 등 다자간 EMR·영상·유전체 등 비정형 의료 데이터를 글로벌 표준 기반으로 연계하여, AI 진단·임상 의사결정 지원 SaaS 개발을 위한 산업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조성

- (규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및 합리적 제도 개선

- *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에서 혁신적인 Vertical SaaS 모델이 기존 법령과 충돌할 경우, 실증 특례(Regulatory Sandbox)를 적용하여 시장 진입의 불확실성 해소
- * (산업별 맞춤형 제도 개선(Negative 규제 전환)) 클라우드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성 평가 중심의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

(금융) 획일적인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클라우드 이용 시 보안성 평가와 리스크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핀테크 SaaS 도입 촉진

(의료) 의료 데이터의 클라우드 저장 및 국경 간 전송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AI 기반 진단 및 환자 관리 SaaS의 법적 리스크 완화

- (사업화) 선도 기업 연계형 Vertical SaaS 공동 사업화 지원

- * 산업별 선도 기업(대기업)과 SaaS 스타트업 간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해당 산업에 최적화된 성공 모델(Best Practice)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 지원

(금융) 선도 금융기관과 SaaS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AML·KYC·리스크관리 SaaS를 공동 개발·실증하고, 실제 금융 업무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타 금융기관으로 확산

(제조) 대기업 제조사와 SaaS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공정 최적화·품질 분석·공급망 관리 SaaS를 공동 개발하고, 대기업 레퍼런스를 활용한 중소기업 확산

○ 가치사슬 차원의 기회 탐색을 위한 지원 방안

- 데이터·규제·통합 요소를 내재화한 Vertical SaaS는 높은 전환 비용을 형성하며, 시장 경쟁을 효율화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전환
- (헬스케어, 지능형 의료) 환자 정보·청구 단계를 넘어, 데이터 관리 및 사후 규제 대응 단계로 진화 중,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기회 영역

<방안(예)> 과기정통부 공공의료 AX 기반 구축 및 의료원 AI 역량 강화 지원 계획

(단기) 의료 AX(AI 전환)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공공 의료 클라우드 전환 지원·확산을 통한 데이터 통합의 기반 마련

(중기) 병원 간 상이한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실시간 공유를 통해 환자의 치료 효율성 강화

(장기) 주요 질환에 대한 AI 특화 솔루션을 개발하여 진료 전 주기 관점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예후 관리·규제 대응까지 연결되는 지능형 의료(Veritcal) SaaS 생태계 구축

출처: (과기정통부)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확산 추진 계획,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안)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금융, 리스크 관리) 고객 유입·거래보다는 심사·평가 및 사후 위험 관리 단계에서 AI의 설명 가능성과 정교한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차별화 요소

<방안(예)> 과기정통부-금융위-민간협력을 통한 금융 AX 추진 지원 계획

(단기) 금융위 망분리 완화 정책과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검증 체계 개편을 통한 금융권 Vertical SaaS 도입 환경 조성

(중기) 금융위 금융 AI 가이드라인 개정과 과기정통부 XaaS 선도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금융 특화 SaaS 확산 및 AI 인프라·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구축

(장기) 고성능 컴퓨팅(K-클라우드)자원을 지원하여 금융 기업들이 자체적인 산업특화 AI모델(Vertical AI)을 고도화하고, Vertical SaaS 형태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원

출처: (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개선 로드맵, 금융권 AI 플랫폼 발전방향,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고시 개정안, XaaS 선도 프로젝트,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제조, Micro-Vertical SaaS) 글로벌 기업이 장악한 설계 시장 대비, 중소 공장의 DX 수요가 높은 생산·운영 설비 및 예지보전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경량화된 SaaS 수요 확대

<방안(예)>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X 및 Micro-Vertical SaaS 생태계 기반 조성 계획

(단기) 제조 SW(MES 등)를 SaaS로 전환하거나, 태생부터 SaaS인 유망 스타트업의 제조 공정에 특화된 경량 SaaS 개발 지원 및 수요기업의 도입 비용 지원

(중기) 제조 공정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여 설비 배치를 최적화하고 가동 결과를 예측하는 예지보전 시뮬레이션 SaaS 개발 및 실증 지원

(장기) 현장의 작은 문제(공정최적화, 고장예측, 품질검사 등)를 해결하는 각각의 Micro-Vertical SaaS 간의 최적 연계 및 통합을 지원하는 기술 표준 체계 마련

출처: (과기정통부) 디지털 트윈 활용 기반 조성 사업, 유망 SaaS 지원사업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조원영, 이동현(2025), 산업경쟁력 강화의 원동력,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성장 동인과 주요사례, SPRI 이슈리포트.
- 김항규, 송지환(2025),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국가 경쟁력의 열쇠:금융·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SPRI 이슈리포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2025년도 K-클라우드 프로젝트: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 지원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디지털 트윈 활용 기반 조성(시뮬레이션 SaaS 개발 및 실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2025년 SaaS 개발 지원사업 사업 안내서
- 금융위원회(2024),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 금융위원회(2025), 금융권 AI 플랫폼 발전방향
- 보건복지부(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https://www.myhealthway.go.kr/portal/>)
- 보건복지부(2024),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안)

2. 국외문헌

- BCG(2023), Your Software Customers Need a Tailored Industry Approach
- BCV(2023), The Current State of Vertical SaaS
- Harlem Capital(2025.10.17.), Deep Dive: AI in B2B SaaS
- Forbes(2023.7.14.), The Rise of Vertical SaaS
- Medium(2024.12.23.), Vertical SaaS: The Rise of Industry-Specific Software Solutions
- Medium(2025.1.14.), Vertical SaaS: The Next Revolution in Generative AI.
- Medium(2025.7.11.), Software Is Dead? Not So fast-Vertical SaaS Is Thriving
- Medium(2025.8.25.), AI-Native Apps: Why Vertical SaaS with Built-in AI Is the Future
- Mordor(2025), VERTICAL SOFTWARE MARKET(2025-2030)

3. 기타문헌

- Mordor(2025), VERTICAL SOFTWARE MARKET Data Sheet
- Gartner(2024), Market Definitions and Methodology: Vertical Industries